‘송기숙기념사업회’ 광주서 꾸려진다

현대문학 1973년 5월호에 실린 송기숙 현대문학 신인문학상(소설 부문) 수상 사진(나종영 시인 제공)과 전남대 인문대 에 있는 ‘우리의 교육지표’ 표지석.

장흥 출신 리얼리즘 문학 ‘거목’
다음달 13일 창립 발기인대회
민교협 등 각계 200여명 참여
내일 교육지표 45주년 행사

지난 2021년 별세한 송기숙은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였다. 남도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한국 소설문단에 큰 발자취를 남긴 존경받는 문단의 큰 어른이었다.

소설 ‘녹두장군’은 민중해방의 선구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삶을 그린 역작이다. 작가는 민초들의 힘을 결집해 부패한 봉건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녹두장군의 열망과 사상을 핍진한 문체로 그렸다 . 무엇보다 작품에는 전라도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는 물론 아름다운 풍광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송기숙기념사업회가 광주에서 꾸려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시인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송기숙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준비위원회 총회)가 오는 7월 13일 오후 4시 5·18기록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백 교수는 발기인대회 준비위원장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김상윤 전 녹두서점 대표(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사무국장은 전용호 소설가 등이 맡았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지난해 장흥에서 꾸려진 기념사업회는 생가와 고향을 중심으로 한 지부 역할을 담당하고 이번에 광주에서 결성되는 기념사업회는 본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12월 5일 선생님 2주기에 앞서 사단법인 출범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교수는 “서울에서도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다수 있어, 재경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부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발기인대회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일 신부, 장헌권 목사 등을 비롯해 전남대 민교협 김병인 교수, 전남대 5·18연구소장 민병로 교수, 문학계 나종영 시인, 채희윤 소설가, 작가회의 정양주 회장,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 상임이사 조진태 상임이사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기숙 선생을 현창하기 위한 이번 기념사업회는 향후 송기숙 명칭을 딴 문학상도 제정하고 추모제도 열 방침이다. 지난해 1주기에는 제대로 조직이 꾸려지지 않았지만 성대하게 추모제가 치러져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오는 29일에는 송기숙 교수 등이 주축이 돼 전개됐던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45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오후 4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박현옥 교육지표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뜻을 되새길 예정이다.

이날은 신일섭 광주전남녹색연합대표(전 호남대 교수) 사회로 김병인 교수가 ‘6·29교육지표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 외 시민들이 토론을 벌인다.

‘우리의 교육지표’는 지난 1978년 6월 27일 송기숙 교수 등 11명이 주축이 돼 발표한 선언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원과 일상에서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주장했다. 전남대 인문대학 건너편에는 당시를 기념하는 교육지표마당이 있으며 ‘우리의 교육지표’를 새긴 비석이 있다.

“‘우리의 교육지표’는 1978년 6월 27일 송기숙 등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고자 발표한 선언이다. 이 일로 교수들이 연행되자 분노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교육지표 마당에는 다음과 글귀도 새겨져 있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교육지표 사건으로 전남대 교수들이 강제 연행되자 전남대 학생 700여 명은 6·29학원 민주화 시위에 돌입한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휴교령이 내려지자 30일 시내로 진출하여 7월 1일까지 반독재투쟁을 전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름밤 ‘재즈 팝’으로 무더위 훌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화가 있는 날’ 오늘 영택스 공연

재즈 팝을 타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여행.

광주문화재단(대표 황풍년) 빛고을시민문화관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 세 번째 무대는 일상을 떠나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2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이며 영택스가 무대에 선다.

이번 공연은 재즈 팝을 타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곡과 참여 아티스트들의 창작곡을 재즈 팝 장르로 편곡해 가벼우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에 초점을 맞췄다.

영택스(Zerotax)는 청년 뮤지션들 성장과 자생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팀으로 재즈 뮤지션뿐만 아니라 팝과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음악 창작 외에도 지역 음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보컬&하모니카 박주영, 피아노 김다슬, 베이스 김선별, 드럼 박준모, 일렉기타 최지성 총 5명이 출연해 ‘제주도의 푸른밤’, ‘피아노’, ‘Home’ 등 11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빛고을시민문화관 관계자는 “매주 마지막 수요일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라며 “재즈 팝을 타고 공연을 떠나는 이번 컨셉의 공연으로 여름 더위를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장료 5000원. 관람신청은 전화로 사전 예약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기증·기탁문화 장려

기증기탁자 초청간담회 모습.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기증자 초청 간담회

지난 2018년 설립된 한국학호남진흥원에는 현재까지 총 100여 문중에서 6만5000여 점의 자료가 기증·기탁돼 있다. 그 가운데 보물과 국가등록문화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가 총 923점에 이른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최근 기증·기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증·기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증·기탁 자료에 대한 추진 현황 등을 소개했다.

기증·기탁된 자료는 정리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국역을 비롯해 해제, 탈초정서, 사진 촬영, 출판 등 다양한 연구 결과물로 구축돼 기증·기탁자 및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이날 초청간담회는 강진 군자서원 최기욱 원장과 남평 도래홍씨,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나주 남평주조장, 영광 동래정씨, 광주 평산신씨, 영광 영광정씨 등 전남 지역 문중에서 참석했다.

천득염 원장은 “기증·기탁해 주신 자료는 소중하게 보관 관리하고 연구·활용해 한국학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유원·김이설 작가 ‘김현문학패’ 선정

시인 황유원

소설가 김이설

시인 황유원과 소설가 김이설이 제9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문학실험실이 27일 밝혔다.

시인 황유원(41)은 2013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한 뒤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 ‘이 왕관이 나는 마음에 드네’, ‘초자연적 3D 프린팅’을 펴냈으며, 김수영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현대문학상을 받았다.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이설(48)은 소설집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누구도 울지 않는 밤’, 장편 ‘나쁜 피’ 등을 썼으며, 황순원신진문학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김현문학패와 함께 시 부문 1000만원, 소설 부문 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준다.

선정위원회는 황유원을 “삶의 갈림길을 발견하고 깊게 사유하여, 그 절박함을 대면시키는 시인”으로, 김이설은 “피하고 싶은, 그러나 엄존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소설가”라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은 문학평론가 고(故)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2015년 이 상을 제정했다. 고인이 간암으로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가 대상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